

## 힝클리 대관장, 오하이오와 뉴욕의 회원들 방문

지난 4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소재한 유색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전국 연합(NAACP)의 지도자 대회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와 뉴욕 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회원들에게 말씀했으며, 지역 사회 봉사상을 수상했다. 5월 첫 일요일에는 유타 주 욕든에서 회원들에게 말씀했다.

NAACP 지도자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4월 24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있었던 미국 서부와 하와이, 일본 및 한국에서 모인 250여명의 NAACP 지도자들과 준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인종의 사람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과 폴리네시아 사람들, 좋거나 나쁘거나, 상류층과 하류층의 사람들과 광범위하게 어울려 왔습니다. 세계는 저의 이웃이며, 그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의 친구요 이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39)고 말씀하신 구세주의 명하심 속에 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폐단에 대해 말씀한 후에, 이렇게 말씀했다.

“이 나라의 흑인 가족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문화와 세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모든 인종의 가족들에게서 지도력이 부인되었습니다.

부모가 다같이 책임을 지는 자녀들을 조용히 훈련시키고, 관대하게 가르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능력 있고 친절할 어머니 곁에서 있는 인정 있고



NAACP(유색인 지위향상을 위한 전국 연합)지도자들에게서 상을 수여 받는 힝클리 대관장

헌신적인 아버지의 지도력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부양하기 어려운 홀어머니에게 맡겨지는 것을 생각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서 아버지가 힘있는 기둥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의 또 다른 주제는 가족 기도의 필요성이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무릎을 꿇는 아버지는 그들에게 놀라운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는 말씀했다. “지존하신 권능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도움의 필요성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과 건강과 힘 그리고 가족을 앞에 두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놀라움 만큼 유익한 효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헌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축복해 주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을 마치고 나서 기립 박수를 받았으며 NAACP 특별 봉사상을 수여 받으면서 다시 한번 기립 박수를 받았다.

###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4월 25일 토요일에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 운집한 7,000여명의 회원들에게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의 초기 시절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오하이오로 오면서 이곳에서 멀지 않은 커넬랜드와 교회의 초기 시절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로 재정적인 문제로 커넬랜드에서 일어났던 크나큰 선별 과정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믿음이 깊고 진실 되고 충실한 사람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곁에 함께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과정은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거는 큰 기대가 허물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 대하여 크게 강조한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의 가정에는 무례함이나 불친절한 말, 원망과 증오 같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과 항상 맞서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나 지나 남편과 아내로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뉴욕 시티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가득 메운 20,000명이 넘는 말일성도들과 방문자들.

아버지요, 부모요, 자녀로서 주위를 둘러 보고 우리의 책임을 똑바로 보아야 할 회개의 날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에 부수된 것입니다. 가족이 떨어져 나가면 국가가 해체됩니다. 그에 관해서는 제 마음속에 추호의 의문도 없습니다. 교회는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 새로운 소규모 성전을 발표하는 것으로 말씀을 끝맺었다.

#### 뉴욕 시티

힝클리 대관장은 4월 26일, 뉴욕 시티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모인 20,000여 청중들에게 신앙과 기도를 통하여 훌륭한 가족을 이루는 것을 포함하여 교회에서 회원들에게 걸고 있는 “큰 기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또한 현대의 계시를 강조하였다.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과 우리의 유대인 및 무슬림 형제 자매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 계시의 말씀을 한 고대의 예언자들을 우러러 공경했”다고 말씀했다.

“그들이 말씀을 전했던 시대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생활 방식도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당시에 계시의 필요

성이 있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그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대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시기의 세상을 사는 예언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현대의 계시를 믿고 있으며, 저는 우리가 이 때 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예언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겸손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은 11개 국어로 번역되어 라디오 방송망을 통하여 동시 방송되었다. 대회 전에 그는 방송 및 사업계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리형철 대사를 포함한 국제 외교관들을 만났는데, 리 대사는 교회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에 베푼 인도주의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는 20,000여 명의 회원들과 멀리 매사추세츠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온 회원들이 대회에 참석했다.

“세계 가장 크게 생각되는 것은 이처럼 많은 말일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네티컷트 하트포트 출신의 스코트 리펠은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4년 전에 침례를 받은 카리브 원주민인 앤시아 피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께서 이곳에 계시다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직접 그분의 영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은 저에게 우리가 배우는 원리와 교리와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메시지가 참됨을 믿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 힝클리 대관장에게 특별 봉사상 수여

4월에 힝클리 대관장에게 특별 봉사상이 수여되었다. 4월 15일에 1,000여 명이 솔트레이크 시티 호텔에 운집한 가운데,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개인의 공로를 기려 말일성도 병원 데저렛 재단에서 매년 수여하는 특별 봉사상이 힝클리 대관장에게 수여되었다.

#### 유타 주, 목돈

5월 3일 일요일, 힝클리 대관장은 유타 주 목돈 출신의 12,000여 명의 회원들에게 말씀했다.

“지금은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위대한 날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했다.

“저는 제가 보는 것에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경의와 존경심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방송망이 따르고 기자 회견을 요청 받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듣기를 고대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일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크고 충분히 강합니다. 또한 우리는 처해 있는 처소에서 저의 형제 자매되는 우리 각자에게 기대되는 바에 따라 생활해 나가야 하는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예언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고대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바로 그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묘사한 그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친절하심과 선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에 보냄을 받아 우리가 갖고 있는 놀랍고 경이로운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고 참되도록 도와주십니다.”



## 헤일즈 장로, 독신 성인들에게 규칙을 따름으로써 재난을 피할 것을 권고함

사라 제인 위버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 중에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듯, 교회 회원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난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과 의식과 성약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며 전에 공군 파일럿트였던 헤일즈 장로는, 5월 3일 미국 공군 아카데미 예배당에서 사관 학교 생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우리가 성신으로부터 받은 경고에 관심을 돌리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목표에 이르기 전에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교육 기구의 노변의 모임 말씀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넘어서 수많은 곳에 있는 100,000여 명의 독신 성인들에게도 전파를 타고 전해졌다.

공군 사관 학교 합창단원들이 노변의 모임에서 공연을 했으며, CES 방송은 교회 소유가 아닌 건물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헤일즈 장로는 말씀 도중에, 공군 사관 생도들과 기타 헌법의 수호자들과 자유, 연설의 자유, 종교의 자유, 모임의 자유, 기업의 자유의 수호자들에게 마음 깊은 곳의 찬사를 보냈다. 그는 자유는 선택을 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에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의 일부를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되고, 여러분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나 저의 자녀와 손자녀들은 여러분이 보여 주신 애국심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955년에서 1958년까지 공군에서 복무한 헤일즈 장로는 비행 중 대원들이 모토로 삼았던 것이 그들이 하는 일에 큰 힘이 되

었다고 말했다. 그 모토는 그의 비행기 옆에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던 “명예로운 귀환”이었다. 헤일즈 장로는 “명예로운 귀환”은 모든 선교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한 후에 명예롭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명예로운 귀환’이라는 바로 이 모토는 영원한 진보의 계획에서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현재는 육신의 생활로 불러오는 지상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명예롭게 돌아갈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헤일즈 장로는 성경은 교회 회원들에게 명예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며,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독신 성인들에게 비행기 조종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특정한 규칙에 순종해야 하며,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비행기 계기관의 나침반은 정북 방향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성신은 나침반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칠 때라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

는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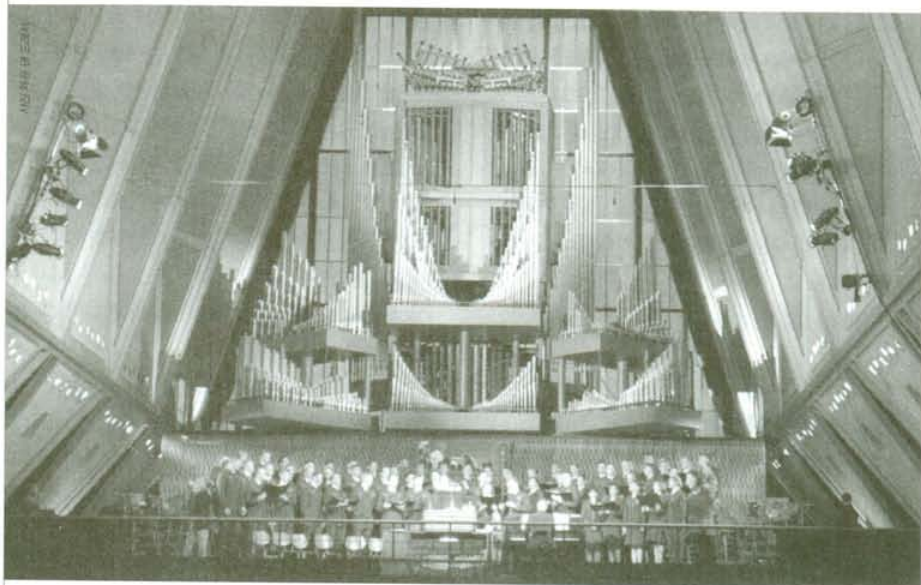
“연료 계기는 소비한 연료의 양과 남은 연료의 양을 나타내 줍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연료가 없다면 누구도 비행기를 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충분한 연료를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는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더욱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며,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납하며, 거룩한 의식을 지키고, 사랑의 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성을 매일 새롭게 해나감으로써 채워지는 것입니다.”

고도계는 조종사들에게 그들의 고도를 알려 주어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비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헤일즈 장로는 말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비행 자세 계기는 수평선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세를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공군 아카데미 예배당에서 열린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공군 사관 생도 합창단이 연주하고 있다.



긍정적이고, 충실하고, 신뢰할 만 합니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우어 주십시오.”

헤일즈 장로는 청중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인생을 그르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주께서 소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곧고 좁은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는 독신 성인들에게 선택적으로 순종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충동적이고 권위에 불순종(명령에 따르지 않고, 합당한 비행 계획에 따르지 않고, 합당한 절차를 배우지 않는 것)함을 피하라고 상기시켰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고, 지상의 육신을 받기 위하여 이곳에 온 이유와,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범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헤일즈 장로는 교회 회원들은 어리석은 판단을 피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에서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신의 빛은 우리가 곧고 좁은 길에 머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으로써 큰 위안을 주십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혼자 남아 있게 되는 것보다 더 위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8년 5월 9일자 처치 뉴스에서 기사 제공

## 러시아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가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모스크바의 러시아 연방의 법무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가되었다. 5월 14일에 서명된 등록

1998년 5월 9일자 처치 뉴스



1998년 여성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5,000명 이상의 군중이 브리감 영 대학 캠퍼스에 모여들었다.

증으로, 교회는 그 나라에서 박애 및 선교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교회 모임을 위한 모임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카톨릭 교회를 포함한 기타 여러 종교 단체도 함께 승인 받았다.

“우리는 우리가 제출한 등록증 서류에 즉각 응답을 해준 법무장관과 기타 러시아 관료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러시아에서의 교회 관계 업무에 책임을 맡고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인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말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일세기 기도 넘는 기간동안 회원들이 있었다”고 그는 말하면서, 1991년에 전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음을 부연해 말했다. 이 승인은 1997년에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교회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그 법안은 모든 종교 단체는 등록할 것을 요구했고, 이미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에서의 교회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었다.

“우리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러시아에서의 말일성도들은 우리의 신앙개조로 인해 더 강하고 역동적인 국가를 이루는 데 헌신할 훌륭한 시민이 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그러하듯이, 그곳의 정부 관계자들과 조화를 이루

며 일하고 의견 교류의 문호를 열어 두고자 합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러시아에 일곱 선교부와 수천 명의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교리의 영향

4월 30일에 칠십일 제일 정원회의 말린 케이 켄슨 장로는 복음 교리는 인간의 행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켄슨 장로와 부인 캐드린 자매는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열린 1998년 여성 대회의 일부인 노변의 모임에서 말씀했다.

연례로 개최되는 이 대회는 15,000명이상이 참석하였다. 금년의 주제는 모로나이서 9장 25절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시”라는 것이었다. 켄슨 장로와 자매의 말씀은 영적인 답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켄슨 장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접근을 거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창세기 39장 참조)

“요셉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교리를 가르침 받았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행위에 교리



가 미치는 영향은 위대하고도 영원한 유익을 미칠 수 있습니다.” 켄슨 장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 지식을 얻기 위한 대가를 치름.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의 방법과 시기에 맞추어 복음 교리를 찾아보고, 생각하고, 저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일찍 일어나고, 좀더 늦게까지 앉아 있고, 하루 중 귀중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빼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교리를 적용함.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내면화할 줄 알고 그러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음 교리를 연

구하고자 결연히 노력할 때 ‘경전’이라는 가장 훌륭한 교리의 원천에 우리 스스로 몰두하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교리를 가르침.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훌륭한 척도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명백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명백하고 단순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켄슨 장로는 회원들에게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때 능력과 영이 함께 하게 되어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심어 줄 것이며 그러한 가르침을 합당하고도 중요한 때에 기억에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켄슨 자매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전통은 영적인 닻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은 작은 것에서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관례가 긍정적인 전통을 만든다고 말했다.

####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함.

“저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라고 말해주는 성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와 같이 해온 가정에서 자라고 또한 제 자신이 그와 같이 하려하는 가정의 부모가 되고 보니, 가족이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화목하지 않게 사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부부가 결혼 생활을 되살려내기 위한 상담을 받는 모임에서… 멋진 식탁을 사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함께 여행을 함.

“저는 자동차 여행이 우리 가족을 함께 하게 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자동차 여행은 가족을 결속시켜 주는 것으로 이 바쁜 세상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함께 책을 읽음.

“어떤 사람에게 책을 읽어 주게 되면 두 사람이 다 공통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더욱 가깝게 됩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함. “저는 가족 기도는 하루를 마치는 완전한 방법이며, 우리는 누구나 경전을 읽을 때 좋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 가정의 밤 시간을 가짐.

“월요일 저녁에, 때때로 우리는 가정의 밤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겠습니다만, 10분간의 공과를 여러 해 계속하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가족의 규칙을 정함.

“가족을 위한 닳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독창적인 천재성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들이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1998년 5월 16일자 처치 뉴스 기사 제공

##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음

신앙 깊은 여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빌립보서 4:13) 있음을 배웠다고 버지니아 켄슨 자매는 브리감 영대학의 5월 1일자 여성 대회의 폐회 모임에서 말했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제1 보좌인 켄슨 자매는 그녀의 집 뒷마당에 있는 넓은 암석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각종 크기의 바위들로 가득차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서 우리의 신앙과 중요한 단계를 시험하는 무대로서, 기록하신 계획으로 그와 같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생활을 하는 위대한 과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 어떠한 바위든지 오를 수 있고, 앞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그녀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문제와 독신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했다. 켄슨 자매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해 나가면서 맞닥뜨리게 될 또 하나의 육신 생활의 현실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을 향해 올라가야 하며, 바위 위를 오르다가 손과 발을 끊히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이 깊은 자나, 십일조를 내고 성전에 참석하며, 경전을 읽고, 일모임에도 열심이며, 방문 교육을



100퍼센트 하는 말일성도 여성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포함된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켄슨 자매는 우리가 등산가의 도구에 비교할 수 있는 명확하고도 단순한 가르침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비유를 연구하며 귀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좋은 길로 소풍갈 때나 높은 바위산을 오를 때 짐을 꾸리는 것처럼, 영적인 짐을 짊어질 도구의 선택을 신약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영적인 도구를 묘사했다.

### 하나님의 평안을 구함.

“하나님의 평안은 돌발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세상의 평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 주님을 믿음.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기록하신 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생에서 겪게 되는 장애를 극복할 용기를 얻고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 적을 용서함.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과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으로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 감사를 표시함.

“우리 생활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고, 발견해 내어 진정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 힘을 주고 새로움을 주는 기운입니다.”

###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누구였는지 장막을 짓히고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 듯이 우리 자신을 더 가까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1998년 5월 16일자 처치 뉴스 기사 제공

## 1998년 9월,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추가 제언



다 함께 나누는 시간 로고

다음 기사는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추가 제언으로 1998년 성도의 벗 9월호에 게재된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것

을 제언한다.

이러한 제언과 일치하는 공과와 유 의 사항과 활동에 대한 것은, 이번 호의 어린이란 12~13쪽의 “기도”를 참조한다.

1. 어린이들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암송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다섯 명의 보조자들에게 그 성구를 나타내는 낱말 카드를 들고 있게 한다.

“너희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커다란 의문 부호)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두 손을 활짝 벌려 주는 것이나 그리스도 상의 그림) 꾸짖지 아니하시는 (잘못한 것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비난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라고 쓴 그림)”

부호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성구를 암송하게 한 다음, 그 낱말카드를 하나씩 치우면서 암송하게 한다.



2.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다니엘서 6장 참조)

집회소 도서실에서 가져 온 그림이나 복음 그림 패킷을 활용한다. 어린이가 유혹을 물리치고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 준비한다. (예를 들어, 새로 온 아이를 놀리기, 돈을 내지 않고 과자를 가져 오는 것, 나쁜 말하기. 시험볼 때 속이는 것,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망가뜨리기 등)

어린이들에게 상황을 선택하게 하고 현대의 다니엘이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 것인지 말해 보게 한다.

3. 모세는 주님을 불렀을 때 큰 힘과 지혜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모세서 1장 참조) 그는 하나님의 세상과 창조를 보았다.

모세가 본 것을 토대로 하여 "종류" 게임을 한다. 다음 종류를 칠판에 쓴다.

나무 꽃, 동물, 새, 강물. 어린이들에게 각 종류에 맞는 말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칠판에 쓴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많은 종류를 열거한다. 거울을 들어 보임으로써 모세가 본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 주고 그는 여러분 각자를 보았다고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를 모세서 1장 39절에서 찾아보고 그 구절을 어린이들에게 읽어 주고 설명한다.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어린이 노래책, 14쪽)를 부른다.

4. 다음 항목을 모으고 그것을 큰 가방에 넣는다. (1) 활과 화살과 이름표, (2) 나의 아버지 낱말 카드, (3) 커다란 노란 해의 그림, (4) 검은 또는 검푸른 종이에 그린 달과 별, (5) 죄는 용서받는다는 낱말 카드, (6) 그리스도의 그림, (7) 니파이 이름표, (8) 레이맨인 이름표, (9) 금판 그림이나 모델 또는 물문경.

어린이들에게 질문한다. "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할까요?"

그들에게 경전에 대하여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에 대하여 가르칠 아홉 명의 보조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각 보조자가 가방에서 항목을 한 가지씩 집어들게 한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앞에서 있게 한다. 보조자들에게 여러분이 경전의 이

야기를 읽을 때 그 장면을 말없이 그리게 한다. 보조자들에게 그들이 맡은 부분을 읽을 때 "무대위로" 나오게 한다.

이노서서 1장 1~16절을 읽는다. 마지막 장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노스의 신앙으로 인해 그의 죄가 사함 받았고, 그는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을 위해 기도했고, 기록이 보존되었음을 나타내도록 한다.

5. 한 성인에게 립하이 백성들의 이야기 (모사이야서 21~22장 참조)를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엘마 백성에 관한 이야기 (모사이야서 24장 참조)를 말하게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기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정해 각 그룹에 이야기해 주라고 한다.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기도는 열심히 했으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시간이 흘러갔음을 강조하도록 한다. "전문가" 배심원을 뽑아 (각 그룹에서 세 어린이 정도) 앞에 나와 앉게 한다. 칠판에 "립하이 백성"과 "엘마 백성"이라고 적는다. 미리 준비한 힌트를 임의로 돌린다.

립하이: (1) 레이맨인들과 싸우고 세 번 졌다. (2) 하나님에게 울부짖었다. (3) 주님께서 레이맨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 (4) 암몬이 도착하여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 (5) 기

드온이 왕에게 보조들에게 술을 먹이라고 권했다. (6) 백성들은 밤중에 비밀 통로를 빠져나갔다.

엘마: (1)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2)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었다. (3)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4) 주님은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였다. (5) 노아 왕의 사악한 제사가 백성들을 다스렸다. (6) 주님은 백성들에게 준비하도록 경고하고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했다.

어린이들에게 힌트를 읽고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가 나타내는 바를 알아내게 한다. 합당한 힌트에 힌트를 붙인다. 두 개의 이야기에 맞는 힌트는 가운데에 붙인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이야기에서 가르쳐진 원리를 그들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6. 기도에 대한 보충 자료는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주님의 바람", 성도의 벗 어린이란, 1998년 3월호, 16쪽; "연구와 기도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함", 성도의 벗 어린이란, 1997년 6월호, 8~9쪽; "자주 기도함", 성도의 벗 어린이란, 1997년 2~3쪽;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벗 어린이란, 1996년 8월호, 14~15쪽





특집 기사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 화양 와드 가정 방문 이야기

이두현(서울 스테이크 화양 와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이 되면 화양 와드의 활동적인 대신권 소유자들은 모두 일손을 멈추고 와드로 모인다. 지난주 방문하였던 가정에 대해 보고하고 서로 도움을 줄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찾으며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대표자로서 방문할 가정을 선정한다. 이렇게 모임을 마치고 나면 저녁 9시쯤. 대부분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수십번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적절한 방문 시간을 선택한 것이 계속적으로 가정복음이 이어질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대상 가족과 대화함으로써 우정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초가 되고 있다. 성도의 첫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 가정에 영적, 세상적인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없는지 알아보고,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신 재능을 기쁘게 나눌 수 있어 가정 복음 교육을 맡은 교사들은 어디서 영원한 기쁨이 나오는지를 겸손히 간증으로 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방문을 시작하자 벌써 1년이 되어 가지만 거의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으며 와드 가정 복음 교육 역사상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다. 장로정원회 회장단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어질 수가 없었으며, 그들은 '신권이 바로서야 가정이 바로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라는 신념 아래 가정 복음 교사들이 신권의 끈으로 한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재활동 회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노라고 말하거나, 자신은 비록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지만 지식만은 참된 교회에서 성장하여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 교사들은 주님의 사업이 얼마나 위대인지 가슴이 벅차 오를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야기 한다.

화양 와드에 가정 복음교육이 꾸준히 이어지는 이유는

1. 평일의 늦은 저녁을 선택한다. — 별다른 일이 없으면 방문 대상자들이 대부분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헛고생하는 일이 없다.
2.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 위주로 시작하여 점차 활동이 저조한 회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 교사들이 즐겁고 지치지 않도록 방문 대상을 정했는데, 성공적인 방문이 되기 위해 교사의 준비상태를 제일 먼저 생각했다.
3. 방문 가정에 맞게 교사를 선정한다. — 대상 가정에 친숙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적절한 교사를 배치하고 차후이 가정에 제일 알맞은 교사를 배치했다.
4. 방문 가정에 성도의 첫 메시지를 준비하여 전한다. (성도의 첫 기증) — 이야기를 하다보면 세상의 이야기로 시간을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 가정에 예언자의 메시지를 전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30분 이내에 끝낸다.
5. 성숙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를 선임과 후임으로 정한다.
6. 가정의 분위기에 맞게 방법을 바꾼다. — 그 가정의 분위기와 관심사에 귀기울이며 부드럽게 권유하였다.
7. 분기에 한번씩 각자 부담하여 식사 및 대화를 하며 단합모임을 갖는다. — 교사들과의 또다른 느낌을 가짐으로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것도 필요하다.

### “내 양을 먹이라”

#### 가정 복음을 나는 이렇게

배덕수(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가정 복음/방문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으레이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거나 100%를 달성해야 한다는 강조로 시작해서 흐지 부지 원래대로 돌아가곤 한다.

왜 그럴까?

첫째, 두려움 때문이다. 기록만 있고 본적도 없는 사람을 만나러 가서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혹시 강한 거부로 당혹스럽게 되지 않을까? 비록 활동 회원일지라도 교회에서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고 지내다가 방문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둘째, 시간이 없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늦게 마치면 동반자와 약속 정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방문 대상 회원의 사정까지 고려해서 약속을 할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논의 하다보면 몇달이 쉽게 지나가 버린다.

셋째, 일의 양이 불명확하다. 제적 회원 450명, 활동 회원 70명, 신권 소유자 25명(소신권과 대신권), 가정복음 팀 12팀, 100% 달성하려면 한팀당 20명, 그 중 활동 회원은 6명, 14명은 비활동이다. 다른 부름에서 이미 봉사하고 있어서 할일이 많은데 이 많은 회원을 방문하거나 어려우면 편지라도 해야하니 야에 처음부터 하지 말자. 신권회 시간에 잠시 머리를 긁적이거나 무표정하게 있어버리자.

네째, 목적 의식이 부족하다. 가정복음/방문 교육을 왜 하나? 스테이크에서는 통계 자료를 요구하고 이는 매달 감독단 모임에서 강조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정 복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교회내에서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단 일의 양을 정하자. 전체 기록 회원 중 활동 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활동 가정을 먼저 방문하자. 방법은 안식일에 교회에서 모두 점심을 같이 먹고 2인 1조를 이뤄서 한 조가 하루에 3-5가정을 방문하자. 우리는 매주 장로 정원회장단에서 각 동별로 분류된 명단을 팀들에게 주고 시작했다. 계획보다는 실제 참여가 적어서 목표 달성 시간이 두배로 늘었다. 처음 주지하던 마음을 일요일에 출정식을 함께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세 시간뒤에 교회에 와서 폐회하기로 하고 시작된 일이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간혹 스테이크 대회나 교회의 큰 모임 때마다 우편으로 메시지와 순서지를 동봉



해 보냈던 그 주소를 찾아보니 80%이상 이 그곳에 거주하지 않거나 도시 계획으로 그 지역이 없어져버렸다. 비활동 회원의 20% 정도만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주소지를 옮긴 회원은 동사무소에서 그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통한 탐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옛 주소지에 아직 살고 있는 회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거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 표현과 적대감을 나타내며 우리들의 방문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20% 안팎의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를 반겨주어서 우리의 사랑을 전달 할 수 있었다. 숫자는 30여 명. 그렇다. 우리는 활동 회원 70명과 30여명의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에게 먼저 가정복음을 해야겠다. 그런데 아직 다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시간을 어떻게 맞추지?” 신권회 시간에 계속 동반자와 이야기해봐도 별다른 궁리가 없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 밤 10시인데요. 직장 마치면 8시 30분이예요.” 방문 갈 집 여건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왜 가정 복음을 하라고 예언자를 통하여 주셨을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예배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경전을 읽으면서, 성전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 사람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가정 복음 교육/방문교육이 아닐까?

내가 속해 있는 와드나 지부에 영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손길을 전해줄 방법이 없다. 매일 매일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는 어떻게 갚을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사업 즉 “내 양을 먹이라”에 내 정열, 시간, 물질 비롯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 가정과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애처롭게 바라 보고 계실 주님의 사랑을 그 가정에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안식일 간증 시간에 눈물로 전했던 나의 간증을, 나의 기쁨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먼저 그 사람과

가정을 사랑해야겠다.

아직 우리의 일은 진행 중이다. 지침서대로 매월 장로 정원회장 그리고 대제사 그룹장과 만나서 가정 복음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

### 가정 복음/방문 교육을 통해 성도들을 강화함

진경섭(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1998년 5월 3일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에서 분리된 일산 와드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가정 복음/방문 교육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신권 지도자들과役員들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은 “교회의 목적은 개인과 가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인 회원 모두가 가정 복음/방문 교육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주님이 성도들을 돌보는 방법이고,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모든 회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신권 지도자들은 가정 복음을 통해 가장이 가정에서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고 가족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닮고,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활동이 저조한 회원을 선정하여 활동화되도록 각 조직과 가정 복음 교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일산 와드에서는 “금주의 점검과 방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 조직에서는 대제사 그룹장단과 장로 정원회 회장단이 소속 회원들에게 주중에 할 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과 가족들을 매주 가정복음과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 월별 재활동 대상을 선정하여 와드에서 가정 복음/방문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즉 재활동 대상이 선정되면 각 조직의 회장단과 가정 복음/방문 교사, 감독단이

하나가 되어 신앙의 불꽃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복음의 간증을 전하고 있다.

감독단은 매주 회원들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별히 박병규 대제사 그룹장은 60이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안식일 모임을 마치고 가정 복음을 실시하여役員들과 회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으며, 상호부조회 회장단도 지속적인 방문 교육을 통해 자매들의 신앙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종익 형제의 부인이 뇌출혈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해 있는 동안 신권 형제들은 꾸준히 가정 복음을 실시하여 이 형제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방문 교사인 김미경 자매는 병상에 누워있는 자매를 대신하여 집안 청소 등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들은 교회 회원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으며, 비회원인 이 형제의 자녀들은 선교사들과 복음 토론을 하게 되었다.

가정 복음과 방문 교육은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에게 주변을 정리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도 큰 힘을 주고 있으며, 전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부름을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며 강한 간증을 가지고 봉사하고, 신앙 안에서 가족이 큰 기쁨을 얻고 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자매들도 재활동 되면서 교회 부름을 통해 책임감을 느끼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 복음과 방문 교육을 통해 일산 와드에서는 10여 가정이 활동화 되었다. 또한 성도들은 가정 복음/방문 교육 교사로 봉사하면서 신앙의 불꽃이 되살아났으며, 교회에서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실은 결코 가정 복음과 방문 교육이 아니면 거두기 힘들었으며, 가정 복음과 방문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간증을 회원들은 얻고 있다.



특집 기사

## 청소년 대회 / 청년 대회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전국의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청소년 대회와 청년 대회를 가졌다. 폭우로 인해 대회를 진행하기에 좋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회가 무사히 끝났다. 이번 호에서는 전국적으로 개최된 청소년 대회와 청년 대회의 상황을 사진과 더불어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간단한 간증을 덧붙여 본다.

### 청소년 대회

#### 서울스테이크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의 3박 4일동안의 일정으로 의정부 근교의 도림원에서 "승영의 고리"라는 스펀서 더블류. 김블대관장님의 말씀



서울 스테이크 청소년대회

을 주제로 청소년과 고문 총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대회가 진행되었다.

#### 서울 북 스테이크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엘마서 37장 35절을 주제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 영동스테이크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동안 81명의 청년청녀들과 25명의 고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이라는 주제하에 장애인 학교, 과수원, 선교부 등에서 대대별로 나누어 일일 봉사를 하며 청소년대회를 가졌다. (이미숙)

#### 강서 스테이크

7월 28일에서 31일까지 3박 4일 동안 총 북 보은 북암 초등학교에서 100여 명의 청소년 및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이 개최되었다.

#### 인천, 청주, 홍성 합동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천안 독립 기념관 솔품 쉼터에서는 인천 스테이크, 청주 스테이크, 홍성 지방부의 청소년 및 고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청소년 대회가 있었다.



강서 스테이크 청소년대회

#### 전주 스테이크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60여명의 청소년과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 벽제 초등학교에서 가졌다.

#### 부산 스테이크

7월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니파이 일서 3장 7절의 말씀을 주제로 약 110명의 청소년과 청소년 역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 배내골에서 개최되었다.

#### 청소년 대회 참여자들의 간증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저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행복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대회 동안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믿습니다...."

(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 한미진)

편집자주: 청각 장애자인 한미진 자매는

8월 30일 함께 참여했던 친구와

청운 와드에서 침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모임 하나 하나가 잘 준비된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었으며, 더욱 큰 간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

영과 승영의 고리가 되는 세미나리, 선교 사업, 성전 결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웠을 때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서울 스테이크 화양 와드 오민환 형제)

고 3수험생이었기에 일찍 보충 수업을 시작한 나에게는 청소년 대회는 큰 집이었다. 청소년 대회와 학교 사이의 길들 속에서 어떠한 결정도 하고 있지 못했을 때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청소년 대회를 우선 순위



영동 스테이크 청소년대회

회 기간 중 청소년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시

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이번 대회 기간에 나는 우선 순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내가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우선 순위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 오게 되면 몇가지 가슴 설레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대회는 나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 항상 충실하려고 하지만 부족하기 그지 없는 행동뿐이었다. 이번 청소년 대회에서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리하이 가족의 광야여행

체험을 주제로 한 산행이었고, 쉽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다. 물론 우리의 산행이 리하이 가족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련을 모두 느끼게 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 일부라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값진 것이었다. 또한 산행 중 불평없이 끝까지 단결하여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도와 준 대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제 청소년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청소년 대회는 앞으로 한 번 뿐이다. 참가해서 후회없는 경험이 되도록 지금부터 교회 안에서 충실한 생활을 하여 내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한다. (인천, 청주, 홍성 합동, 익명)

이런 청소년 대회를 통해 가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의 화평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

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임에 확신을 가지는 아주 훌륭한 모임이었다.

(강서스 테이크업 명)



서울 동, 동대문, 영동 스테이크, 원주 지방부 합동 청년대회

“청년 시절의 마지막 청년 대회인 이번 모임을 통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발견했으며, 독신이 되면 이번 대회에서 배운 봉사하는 정신과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고자 한다.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 순미정 자매)

### 청년 대회

#### 서울, 서울북, 서울서 스테이크

8월 5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하문 대보리 대보수원원에서 서울, 서울북, 서울서 스테이크의 독신 성인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대회가 개최되었다. 밤이면 쏟아부던 폭우도 낮이면 깨끗이 개어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던 이 대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악천후 속에 진행되었으나 모든 참여자들이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고 서로를 돕는 가운데 우정을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

#### 광주 스테이크, 전주 스테이크, 순천 지방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원광대 임해수원원에서 1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청년 대회가 개최되었다. 호남지역의 모든 독신들이 함께 모인 이 대회에 참가한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의 김재

현 형제는 “청년 대회를 통해서 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과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며 참가자로서의 소감을 밝혔다.

#### 서울 동·동대문·영동 스테이크, 원주 지방부

서울 동·동대문·영동 스테이크와 원주 지방부에 소속된 100여명의 독신 성인들은 '98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동안 포천에 위치한 베어스타운에서 청년 대회를 가졌다.

“순종”을 주제로 정한 이번 대회



청주, 대전 스테이크, 홍성 지방부 합동 청년대회

기간 동안 폭우로 인해 인접한 경기도 지역들이 물에 잠기고 계획한 모임들이 변경되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훌륭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 대구, 마산, 부산, 부산서 스테이크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가야연수원에서 양기욱 부산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교리와 성약 132편 5절을 대회 주제로, 순종(해의 왕국의 결혼)을 대회 모토로 하여 대구, 마산, 부산 스테이크, 부산서 지방부의 독신 성인 160여 명이 모여 연합 하계 청년 대회를 가졌다.

#### 청주, 대전, 홍성

8월 4일부터 8일까지 중부 신학원에 속해 있는 청주와 대전 스테이크, 홍성 지방부 독신회원들은 대전과 논산 일원에서 청년 대회를 가졌다. “거듭남”이라는 대회 목적과 “개혁자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안전과 확신을 얻는 방법을 배움”이라는 목표를 가진 이 대회에서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3박 4일 동안 초기 성도들의 역경과 신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변인식)



대구, 마산, 부산 스테이크, 부산 서 지방부 합동 청년대회

하나님은 살아 계시



## 몰몬 광장

Mormon Forum

### 강서, 인천, 안양 스테이크 합동

8월 5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가리산 수련원에서 120여 명의 독신이 모인 가운데 합동 청년 대회를 가졌다. 대회 기간 내내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많은 열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운 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다. 특별히 대대조직이 아닌 모의 와드 조직을 도입하여 총 6개 와드가 시몬의 스테이크가 되기 위해 매 프로그램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속에서 건강한 말일성도 청년의 기상을 찾을 수 있었다. (김양동)

### 청년 대회 참여자들의 간증

“소극적인 성격이 청년대회 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셔서 그 부족함을 채우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이경민)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혼자만이 말일성도였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이 많은 사람이 모두 나와 같은 신앙과 간증을 가진 말일성도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부산 스테이크 신정 와드, 정명환)

“모든 경험들은 나에게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햇볕이 쏟아지는 아스팔트길과 가파른 산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발에 물집이 생기는 사람도 많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고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높은 산을 올라가는 어려운 곳이 있으면 내려가는,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음을 알았다. 비록 걸으면서 점심으로 오이 한 개와 빵 하나였지만 그리도 우리는 전진했고 즐거울 수 있었다.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는지 알 수 있었다.”

(대전 스테이크, 오현욱)

### 질문: 안식일에 어떻게 금전 거래를 피할 수 있는가?

구약전서 느헤미야 10장 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식일의 금전 거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이러한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율법은 복음이 회복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말일의 주님의 종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현대의 예언자들은 주일에 물건을 사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에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상인들에게 일요일에도 계속 문을 열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수적인 용역들은 제공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상인들과 고객들이 주님의 날에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벨린 에이치 옥스,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26-27쪽)

“형제, 자매 여러분, 일요일에 물건을 사지 맙시다. 이것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연료를 충분히 넣으십시오, 토요일에 주말에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하십시오, 여러분이 가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일요일에도 일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까?...”

(얼시 팀기,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10-12쪽)

— 편집자 —

### 독자의 의견:

“토요일에 미리 준비해서 주일에 금전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 집에는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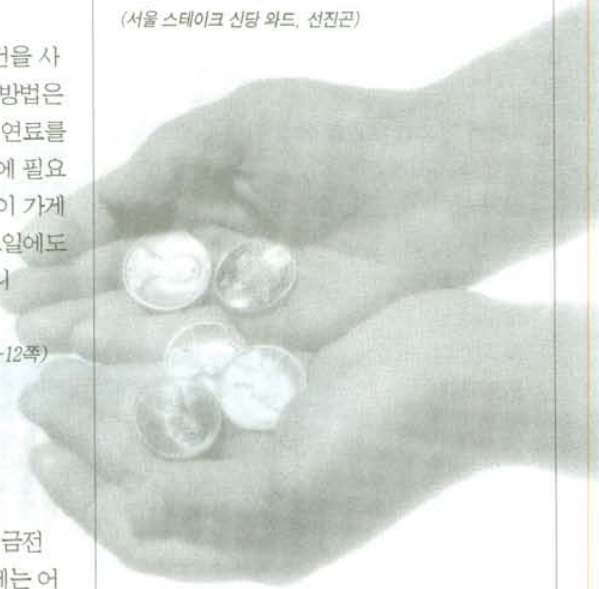
린 아이들이 많은 데 처음에는 다소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어른들의 감시자가 되어서 더욱 철저히 지키고 있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하지 않는가?” (대구 스테이크, 이미득)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겠지만 주중에 철저한 준비를 계획표에 따라서 점검, 실시한다. 오랜 교회 생활에서 몸에 밴터라 지금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어릴적부터 실천을 통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뉴욕 주 롱 아일랜드 스테이크, 진경미)

“일년 전에 교회의 회원이 된 늙으신 어머니는 손자들을 귀여워 하신 나머지, 손자들에게 일요일에도 과자를 사주시는 것을 큰 낙으로 여기셨다. 그러나 어머니보다 조금 먼저 교회의 회원이 된 저에게는, 일요일에 교회 앞 가게에서 손자들에게 과자를 사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나를 민망스럽게까지 하였다.

교회 회원이 되신 후 어머니께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렸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해 하시던 어머니도 이제는 이것 만큼은 잘 지키고 계신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선진곤)





## 아내와 함께 침례받은 소방서장

멜라니 맥킨니 자매 선교사 (대전 선교부)



청주 소방서장으로서 지난 5월  
개종한 홍병우 형제

홍병우 서장은 20살에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에 이미 일반 교회에 실망을 했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는 아내인 송인희 자매와 함께 큰 종파들을 계속 찾아다니며 연구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수십 년간 진리를 탐구한 끝에 홍 서장은 결국 희망을 버렸고, 어떠한 교회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대신, 그는 집에서 경전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도 했다. 이것은 단지 홍 서장과 그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단계였을 뿐이었다.

홍 서장이 자신의 고향인 충주에서 “물문” 선교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단지 영어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외국인들을 자신의 집에 불러들였다. 그 때가 1982년이었고 홍 서장은 선교사들이 주관하는 영어 성경 수업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의 진리 탐구가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교사들과 만난 것이 그에게 금방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청주시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홍 서장과 그의 아내는 또다시 교회와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현재 청주시 석교 지부의

지부장인 김영중 형제는 그 당시 홍 서장의 부하 직원이었다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았다. 김 형제의 아내인 윤 자매가 송인희 자매를 만나 사귀게 된 것은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윤 사매가 우정과 모범을 통해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함에 따라 홍 서장의 진리 탐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홍 형제가 다시 승진하여 고향인 충주시의 소방서장이 되기까지 홍 형제가 청주에 머무른 시간은 그다지 길지는 않았다. 그곳에서 홍 서장은 선교사들과 접촉했고 정기적으로 만났다.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이러한 만남을 지속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홍 형제에게 관심을 가진 선교사들의 인내와 마음을 열어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홍 형제는 이 젊은이들이 자신이 수년 전에 더 이상 찾기를 포기했던 그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4개월 동안 선교사들과 꾸준한 만남 끝에, 소방 서장이 개종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 왔다. 어느 날 홍 형제와 토론을 하던 중,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온 커트 피츨러 장로는 다음의 성경 구절을 나누게 되었다. 그것은 에스겔서 37장 16-19절로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이었다. 물문경의 진실성에 대한 홍 서장의 의심은 마침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제가 마음에 변화를 입고 교회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때였습니다.”라고 회상했다.

침례 받고자 결심하는 것이 홍 서장에게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되었다. 대전 선교부의 선교부장님과 토론하는 중에 홍병식 부장님은 일정표를 꺼내면서 1998년 5월 3일에 홍 서장과 그의 아내를 침례주러 오겠다고 과감하게 말했다. 그 분은 계속해서 홍 서장에게 그 날에 침례받기 위해 자

신을 준비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홍 서장은 흔쾌히 그 권유를 받아들였고, 여러 작은 기적들을 통해 버드 장로와 신혁 장로와 함께 나머지 선교사 토론에 대한 일정을 짤 수 있었다. 송인희 자매는 정확히 일주일만에 멜라니 맥킨니 자매 선교사, 그리고 장영난 자매 선교사와 함께 토론을 마쳤다. 다른 모든 복음 원리를 기꺼이 받아들여려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참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홍병우 서장과 그의 아내인 송인희 자매는 평생 동안의 진리 탐구와 16년 간의 선교사들과의 만남 후에 1998년 5월 3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침례받았다. 홍병우 형제는 침례식에서 겸손히 그러나 자신있게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 “나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더 이상 나의 확신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 서울 선교부장단

#### 물문광장 독자의견 모집

물문광장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대한 독자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보내실 때는 자신의 이름과 소속 스테이크/지방부, 워드/지부를 밝혀주시고 원고지 1~2매 분량으로 요약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우: 133-600) 성도의 벗 편집실

10월: 우리는 어떻게 구도자나 개종자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11월: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12월: 어떻게 우리의 성격 중 부정적인 측면을 변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가?



지갑중 한국전 참전 협회장과 면담

지난 7월 15일 해리스 서울 선교부장은 지갑중(池甲鐘) 한국전 참전 협회장 부부를 맞이해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서울 성전을 함께 둘러보면서 성전이 지닌 특별한 목적을 설명했다. 지회장은 한국전에 관련된 특히 16개 해외 참전국에 대한 모든 기록을 발굴, 정리한 중군 기자로서 해마다 재향군인회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을 초청하는 일을 해오고 있던중, 미국에서 온 로즈 그리핀 자매의 동생의 전사지를 찾아준것(6월 25일 서울방송 및 조선일보 사회면에서 소개됨)이 계기가 되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해리스 선교부장이 초대했다.

또한 지난 8월 14일 서울 선교부장단은



좌로부터 해리스 선교부장, 지갑중 회장, 허용환 제1보좌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기념 촬영한 서울 선교부장단. 우로부터 허용환 형제(1보좌), 해리스 선교부장, 해리스 자매, 박은정 자매, 조순희 자매, 신 낙균 장관, 이근혁 형제(2보좌), 문화관광부 중무국장.

국립극장에서 창극 '백범 김구'를 관람하고 신 낙균 문화관광부장단과 환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사회면을 가득 채운 두 말일성도 자매

지난 6월 25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는 특별한 기사가 실렸다. 미국에서 온 로즈 그리핀 자매와 신당 와드의 조순희 자매의 사진과 이야기가 사회면의 절반 정도에 걸쳐서 실려 있었지만 이들이 교회 회원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내 동생의 전사 흔적 이라도..."라는 제하의 기사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온, 선교 사업을 무려 14년 이상(복음 선교사 4회, 성전 선교사 3회)한 말일성도 자매였다. 해리스 서울 선교부장이 지난해 여름 한국으로 부름 받은 직후 건강 진단을 받던 병원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하던 그리핀 자매는 해리스 선교 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다. 6.25동란 중에 막내 남동생이 서부 전선에서 전사했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선교부장단과 함께 원주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면서 허용환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허 형제의 소개로 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원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리핀

자매를 청량리역에서 기다리다가 인터뷰 기사는 그 다음 날 기차를 타고 그리핀 자매 동생 '지미'의 전사지를 찾아서 군산까지 동행 취재했다. 또한 청운동 서울 선교부를 방문해서 해리스 서울 선교 부장도 인터뷰 했지만 신문에는 교회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선교사'라고만 표

시해서 아쉽기도 했다. 이 기사를 취재한 기사는 조선일보의 7월의 조선일보 발행인 상을 수상했다.

조선일보



◊51년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동생 지미의 전사지 안내를 맡은 박순희씨와 함께 23일 충남 장항행 열차로즈 그리핀 할머니. <李鍾贊기자·jclie@chosun.com>

6·25 전쟁에서 동생을 잃은 로즈 그리핀 자매를 취재한 조선일보 6월 25일자 신문

말일성도 형제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중국어 부문 1, 2위

지난 6월 19일 경남 진주 동명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경상남도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마산 스테이크 밀양 지부 회원인 이동



관(고3), 이동주(고1)형제가 중국어부문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특별히 이동관 형제는 경남 경시대회에서 3년 연속 1등을



이동관, 이동주 형제 가족

### 대전 선교부장 환영 모임

지난 7월 18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대전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은 데이비드 린 와델 선교부장 부부를 모시고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먼저 재닛 와델 자매는 훌륭한 조상에 대한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했다. 특별 찬송에 이어 39년 전 선교사업에 대한 간증과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에 대한 관심과 성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했다. 15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참석하여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과 선교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김논산)

### 광주, 전주, 순천 합동 바운티풀 축제

지난 7월 17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광주 스테이크, 전주 스테이크, 순천 지방부 합동으로 바운티풀 축제가 개최되었다.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서 펼쳐진 이 축제는 80여 명의 독신 형제, 자매들이 참여하였다. (홍새라)

### 마산 스테이크

### 98년 마산 스테이크 음악회

지난 7월 17일 마산 와드에서 배태호 마산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바르게, 다함께"라는 주제로 제1회 마산 스테이크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문창호 형제의 사회로 가진 모임에서 경화 와드, 충무 와드, 창원 와드, 마산 와드, 진주 와드, 진해

와드의 순으로 각 와드 증창단이 준비한 '건전 가요 및 찬송가'를 발표하였다. 이 음악회를 준비/발표하면서 '각 단위 조직 별의 지속적인 증창단 활동 강화와 교회 음악 관련 자료의 충분한 활용'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향후 와드/지부를 대표하는 증창단이 4개월 간격으로 연 3회로 마산/진주 지역에서 각 경연 대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임준덕)



수원 스테이크

### 한 여름밤의 음악회



지난 7월 25일에 한 여름밤의 음악회가 수원 스테이크 부장단의 주관, 도부민 형제의 초청으로 국내에서 활동적인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회원들의 음악을 통하여 영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으로는 피아노 3중주와 박경숙, 장신권, 정사용의 성악이 진행되었는데, 몸이 좋지 못한 가운데도 훌륭한 성악을 들려준 박경숙씨는 아무리 작은 무대라도 관심이 있는 곳이면 달려가서 최선을 하다는 예술인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회원들의 요청으로 참여한 모든 성악가들이 부른 "향수"를 들은 가운데 모임을 마쳤다. (이상호)

스물 한살의  
신혼이었던  
내 동생 지미...  
한국을 위해  
죽은 너를  
한국인들은  
잊어버렸다

어머니 유언 따라 죽기  
戰死地·천적비등 「혼적

“이 곳 어디가에서 내  
동생이 죽었을까요...”  
평생을 바라보던 파란  
눈의 어머니는 말들의  
지 못했다. 50년 동안  
도 서신과 장례식장 바닷  
가를 행진, 무지그리핀  
(경)과, (경)과, (경)과,  
미니. 전사물지사에 적  
아내와 어머니의 죄악  
의인(인)인 지  
면, 울음을 뒤로하고 쉼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죄악  
프랑스 시군을 떠난 것이

차지했다. 두 형제는 현재 경남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그들이 중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는 부모들이 1980년 지역대회 때 김불 대관장께서 “우리 나라를 통해 중국에 복음이 전파될테니 한국 성도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 때문이었다. 아버지인 이재열 형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두 아들을 화교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으며, 이제 두 아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길 원하고 있다.



## 초등협회 대회

지난 7월 17일 수원 스테이크에서는 61명의 초등협회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협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어린이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리 대회, 종이 접기, 연극, 포크 댄스 등이 진행되었다. (이상호)

## 서울 동서 신학원 학생회 합동 농촌 봉사 활동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 서울 동·서 신학원 학생회는 경기도 오산에서 합동 농촌 봉사 활동을 가졌다. 2년 여 만에 가진 이번 농촌 봉사 활동에는 30명이 참가했고, 오산 와드 회원들의 배려로 인해 이전 보다 나은 시설에서 지낼 수 있었다.

이번 농촌 봉사활동에는 잡초 제거, 밭 정리 등을 하면서 땀을 흘렸고 저녁에는 오산 와드 회원들과 탁구 경기, 이성 교제와 선교사업에 관한 토론, 레크레이션 활동 등이 결들여졌다.

## 인천 스테이크

### 제3회 신바람 부평 와드 역원 세미나



지난 7월 11일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에서는 와드의 모든 역원과 배우자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신바람 부평 와드 역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자기 신뢰도 평가", "부평 와드 비전 통합 시트"의 토론과 부동산 전문가인 이성렬 형제를 초청하여 IMF 시대 부동산의 전망에 관한 강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강서 스테이크

### 초등협회 여름 캠프



강서 스테이크 초등협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과 25일 청계산 청소년 수련장에서 "초등협회 여름 캠프"를 개최하였다.

특별히 가족을 동반한 가운데 등산, 캠프 화이어 및 심신을 단련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사랑과 우정을 증진시키는 모임이 되었다. (오은용)

## 서울 북 스테이크

### 초등협회 여름 캠프



지난 7월 23과 24일 양일간 서울 북 스테이크에서는 녹번 와드 잔디밭에서 90여 명의 초등학생 어린이와 20여 명의 캠프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98 여름 캠프 대회를 개최하였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는 요리 실습과 캠프 파이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제 3땅굴을 견학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조국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발숙)

## 전주 스테이크

### 셋별대회

지난 7월 20·21일 양일간 전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약 40여명의 초등협회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셋별대회를 가졌다.

### 정주 지부가 정읍 와드로 승격

지난 7월 19일에는 정주 지부가 정읍 와드 와드로 승격된 뜻깊은 와드 대회를 가졌다. 특별한 와드 대회를 위해 이 지역에서는 16일부터 아영, 체육 대회, 노변의 밤 등 많은 모임들을 가졌다. 노변의 밤 시간에는 전도소가 세워졌던 시절부터 정읍 와드가 되기까지 정읍을 거쳐간 많은 분들이 초대되었다. 110여 명이 참석한 성찬식 시간에서는 와드로 승격된 기쁨과 특별한 영을 느낄 수 있었다. 정읍 와드는 와드를 분리 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현재도 열심히 뛰고 있다.

## 역원 변경

### 서울 선교부

선교부장단 제2보좌: 이근혁

### 서울 동 스테이크

미아 와드 감독: 우성춘  
(전임자: 이형구)

###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감독: 김용수  
(전임자: 서문수)